

사설 | 대학주보 창간 70주년 맞아

대학주보의 역사가 곧 경희의 역사다

푸른 뱀의 해 2025년, 대학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는다. 뉴스 제작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요즘 시대다. 그럴수록 언론사와 독자 간의 신뢰 관계는 더 중요하다. 끊임없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대학주보는 7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흔들림 없는 보도, 꼼꼼한 취재,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독자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개교 이래 최초로 이공계열 출신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자율전공 학부·자유전공학부의 이름으로 무전공 선발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 틀을 잡았다. 위생 논란이 계속됐던 국제캠 학생 식당 위탁업체 리앤이라마띠네가 퇴장했고 생협이 국제캠에도 도입됐다. 또 16년간 동결됐던 등록금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곧 실현될 것

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흔들렸던 한 해였다. 한 대학에서는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제한되고 억압받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학교를 포함해 전국의 교수는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언론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질 뻔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내외 격변의 흐름 속에서 대학주보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되새기며, 독자와 함께 사건을 기록하고 의미를 되짚는 데에 최선을 다해왔다. 감시자로서 사건의 핵심을 냉정하고 균형 있게 짚으며 구성원의 권익을 지향했다. 학생, 교수가 함께한 '참여마당' 코너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기도 했다.

창간 70주년을 맞이한 대학주보는 이제 단순히 기록자의 역할을

넘어 학내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더욱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이에 맞춰 대학주보는 여러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격주로 발행하는 지면에는 창간 70주년 특집 기획 섹션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증면도 계획하고 있다. 특별 기획 기사로 독자에게 새로운 통찰과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70년 역사를 돌아보며 경희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편찬 사업도 진행해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올해도 대학주보는 언론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온라인 뉴스를 더욱 활성화해 각종 사안의 시의성을 놓치지 않겠다. 지면에는 심층성과 기획성이 더욱 돋보이는 기사를 제공하며 독자에게 통찰을 제공하는 양질의 매체로 역할을 다하겠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선

독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언론이 되겠다.

대학주보의 존재가 곧 경희의 역사다. 기자들은 그 역사를 써 내려가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자의 자부심과 실력이 모든 것은 아니다. 독자의 관심, 신뢰와 응원, 따끔한 비판과 질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뉴스는 뉴스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힘들다. 지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대학주보는 70년 동안 경희의 언론 기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2025년, 창간 70주년을 맞는 대학주보는 늘 당신의 옆에서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이번 사설을 통해 감히 약속드린다.

세시봉

애도의 방식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새해를 맞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지난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활주로로 이탈해 로컬 라이징이 설치된 둔덕과 충돌했다. 탑승자 181명 중 단 두 명만 생존했다. 연말에 행복한 여행을 떠났던 가족, 연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방콕에서 출발한 사고 항공기는 착륙 시도 중 랜딩기어가 퍼지지 않아 1차 착륙에 실패했다. 이후 동체착륙을 시도했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충돌했을 때 쉽게 파손되는 재질이 아닌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 국토부는 '재검토하겠다'라는 답을 내렸으나, 너무나도 빠른 대응이다.

12.3 비상계엄사태로 시작된 대통령과 연이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및 대행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민은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대응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이다.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참사에서 늘 발생했던 무책임한 책임 공방과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변화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 다시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를 겪게 됐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우리학교 동문인 김애린(언론정보학 2013) 씨의 희생 소식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모두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기리는 가장 큰 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국제캠 학생회관 식당 생협 운영

양캠 동일 복지 실현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국제캠 학생회관(학관) 식당의 새 운영 주체가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으로 결정됐다. 생협의 운영 범위가 서울캠에서 양 캠퍼스로 확대된 것이다.

생협을 환영하는 국제캠 학생들의 기대와 별개로 앞으로 과제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생협은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조합원 300명 및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만 모이면 설립할 수 있다. 우리학교 생협도 서울캠 구성원들이 조합원이 돼 출자한 금액으로 설립됐다.

일반 기업처럼 '이익'이 목적이 아닌 '복지' 자체를 목적으로 뒀기에, 생협은 안정적인 운영 유지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학생 식당 운영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서울

캠에선 서점 또는 편의점 운영을 통해 수익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생협이 국제캠 식당까지 운영하면서 또 다른 적자 사업을 맡게 된다면, 운영상의 위기를 마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물론 학교는 양캠의 동일한 학생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협에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결국 생협의 국제캠 안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캠처럼 서점, 편의점 등의 운영 수익으로 생협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학교와 총학생회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제캠 구성원의 생협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중요하다. 이번 학관 식당 운영을 계기로 국제캠 구성원들의 생협 조합원 가입이 늘어난다면 생협은 국제캠 내에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이번 일이 양 캠퍼스에 생협이 자리잡아 동일 복지가 실현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양여진

만평 쉽지 않은 학생 복지의 길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